

중세국어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장 윤 회*

1. 서 론

본고는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이쓰녀' 구문¹⁾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이쓰녀'는 과연 어떠한 문법적 요소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보이는 '-이쓰녀' 구문에 대한 설명이 과연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기에 다소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이쓰녀'가 사용된 전체 문맥의 해석 결과를 '-이쓰녀' 구문의 성격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그 동안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쓰녀'의 문법적 지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반성에서부터 본고의 논의는 시작된다.

'-이쓰녀'의 문법적 지위 및 '-이쓰녀' 구문의 성격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 박사과정 수료

1) 본고에서의 '-이쓰녀' 구문은 단순히 '-이쓰녀'가 사용된 문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문(構文)'은 그 구문에 사용된 형태를 사용하여 명명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본고에서는 적절한 다른 명칭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편의상 '논의 대상이 되는 형태-구문'이라는 식의 명명법을 사용하였다.

주로 중세국어의 의문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²⁾ 대체로 '-이쓰녀' 구문을 수사의문문 정도로 인식해 왔다. 우선 안병희(1967: 220)에서는 '-이쓰녀'와 '-이쏜', '-이쓰니잇가' 모두를 중세국어의 반어법을 형성하는 의문법 형태로 보았다. 따라서 '-이쓰녀' 구문은 의문문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 왔다.³⁾ 김승곤(1975)에서는 '-쏜'과 '쓰녀'는 같은 형태소가 아님을 보이면서 '-쏜'을 "가정형씨끌"(가정형 어미: 필자), '-쓰녀'를 "억양형씨끌"(억양형 어미: 필자)으로 보았다.⁴⁾ 이인모(1977)은 '-이쓰녀'와 '-이쏜'이 사용된 문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공식화하고 '-이쓰녀'와 '-이쏜'에 대한 정밀한 형태소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여기에서는 '-쏜' 이외에 '-이쓰녀'도 기본적인 형태임을 밝히고, 문장말의 '-쏜'계 어사는 '이+쓰니+여' 정도로 분석되는, 지정사의 활용형으로 보았다. 이 '-쏜'계 어사는 '흐물며' 구문에서는 수사의문문을 이루고 '흐다가' 구문에서는 감탄문을 이루는 것으로서, 문장 중간에서 주어에 통합되는 강세조사 '-쏜'계 어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부터 17세기 초기까지 나타나는, '-이쓰녀' 구문의 변화형 '-이쓰나' 구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쓰녀' 구문과 동질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이쓰녀'에서 '-쓰나-'라는 기이한 "강세를 나타내는 선행어미"가 분석되어 나오게 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승녕(1981: 260~261)에서는 '-이쓰녀' 구문을 문장 종결법의 하나로 보고 이를 '강세법'이라 이름붙여 '-이쏜', '-이쓰녀', '-이쓰니잇가'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녕(1985)에서는 '-이쓰녀', '-이쓰니잇가'의 '이'

2) 고어사전류 등에서의 '-이쓰녀'에 대한 전통적 처리에 대해서는 이인모(1977), 이승녕(1985)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이하에서 언급할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쓰녀' 구문의 수사의문문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쓰녀' 구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파악하는 태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재영(1995)에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이)여'가 15세기에 의문형의 토(마)로 사용된 혼적으로서 '-이쓰녀'에 대용되는 예를 들고 있으며, "15세기의 '-쓰녀'에 직접적으로 대용하는 수사의문을 나타내는 토" 등의 언급을 볼 때 '-이쓰녀' 구문을 수사의문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쏜'에 대해서는 김승곤(1986)에서 이러한 견해를 약간 수정하여 "가정도움토씨"(가정의 보조사: 필자)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쓰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양의 씨끌"으로 처리하였다.

는 계사로서 선행 명사와 “가상의 추정” 또는 “가상의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몽상”을 나타내는 문장 종결어미 ‘-сан’을 연결해 주는 요소로 보고, ‘-сан’, ‘-쓰녀’, ‘-쓰니잇가’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 이승희(1996: 21~23)에서는 ‘-이쓰녀’가 기원적으로 감탄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감탄의 종결어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감탄의 종결어미가 특정한 구문으로 그 쓰임이 한정되면서 감탄의 의미가 인식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이승희(1996)에서는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달리 감탄 종결어미설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은 ‘-이쓰녀’를 종결어미적인 요소로 파악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쓰녀’를 종결어미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쓰녀’를 계사의 활용형으로 파악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쓰녀’가 명사에 직접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쓰녀’ 전체를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태도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분 양보하여 ‘-이쓰녀’ 전체를 종결어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결된 문장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문장을 종결하는 다른 종결어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혀 ‘-이쓰녀’라는 종결어미의 분석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이쓰녀’가 종결어미로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종결어미설을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짚이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허웅(1975: 385~387, 405~406)에서는 ‘-이쓰녀’를 “도움토씨 ‘-이сан’”에 “감탄을 나타내는 부름자리 토씨 ‘-이여’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이сан’과 ‘-이쓰녀’의 차이를 감탄조사의 유무에 따른 것 정도로 파악했다.⁵⁾ 이

5) 허웅(1975: 386)에서는 ‘-이сан’이 다른 조사들과는 달리 “말의 끝 풀이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다른 토씨와 다른 특색”이라고 말하고, 허웅(1975: 405~406)에서 ‘-이쓰녀’가 “임자씨와 임자씨 노릇하는 말에 불어 월을 끌맺는” 일도 있다면서 이때의 ‘-이쓰녀’에 대해서는 ‘-이сан’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сан’ 구문과 ‘-이쓰녀’ 구문의 차이를 어느 정도의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쓰녀’를 ‘-이сан’과 ‘-이여’의 통합으로 본다면, ‘-이сан’ 구문과 ‘-이쓰녀’ 구문의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현희(1982: 49~64)에서는 '-이쓰녀, -이쓰니잇가' 구문은 감탄어미 '-이여'로 끝나 수사의문문적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에 "강조"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쓰'를 개재시킨 구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쓰녀' 구문과 '-이쓰' 구문의 차이점을 밝힌 후 이를 구문 모두 수사의문문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쓰녀' 구문은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소멸했으며 '-이쓰' 구문은 '-이쓰나'로 이어져 《朴通事諺解》에까지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쓰녀' 구문의 성격에 대해 "수사의문적 효과를 표현하는 것으로 감탄문으로 볼 수도 없고 수사의문문이라고도 볼 수 없는 매우 기형적인 문장"이라고 만 언급하여 'NP-이쓰녀'가 이루는 문장이 어떠한 성격의 문장인지 명확치 않으며, '-이쓰녀'의 '-이여'를 감탄어미로 분석함으써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쓰녀'에 조사(호격조사이건 감탄조사이건) '-이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NP+이여'로 문장이 종결되는 방식이 중세국어의 문장 종결법 범주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장 종결형이 수사의문문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그 기제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현상으로서, '-이쓰녀' 구문이 수사의문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평서문적인 성격, 감탄문적 성격을 모두 지니는 것은⁶⁾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쓰녀'에 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어떤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6) 14세기 말경의 자료인 《紙林寺本 楞嚴經》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한상화(1994)에서는 15세기 '-이쓰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구결토 '-七ホニ, -七八ニ' [이를 한상화(1994)에서는 '-이쓰녀'로 읽고 있으나 이는 '-쓰여'로 읽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재영(1995: 254)를 참조할 것.]가 설명문, 의문문(수사의문문), 감탄문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紙林寺本 楞嚴經》의 구결토가 달린 부분에 대한 《楞嚴經諺解》의 언해문이 어떠한 문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쓰녀'에 해당하는 구결토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언해자들이 다양한 문장으로 언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언해자들이 전후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언해에 반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쓰녀'의 선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결토에 대해 언해자들이 다양한 문장으로 언해한 것은 후술할 바와 같은 '-이쓰녀' 구문의 성격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의 '-이쓰녀'에 대한 연구는 '-이쓰녀'를 종결어미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과 조사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어떠한 연구에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쓰녀'에 대한 정밀한 형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한편으로,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이쓰녀', '-이쓰니잇가', '-이션' 등이 과연 동일한 형태소이며 각각의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지 않은 채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⁷⁾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쓰녀' 구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션' 구문, '-이쓰니잇가'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 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쓰녀' 구문의 성격과 '-이쓰녀'의 문법적地位가 명확해질 것이며 '-이쓰녀' 구문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원인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의미

2.1. '-이쓰녀' 구문의 구조

우선 중세국어에서 '-이쓰녀'가 사용된 구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ㄱ. 내 說法이 策로 가줄봄 굳호물 알면 法도 오히려 반드기 ㅂ를 띠어니 ㅎ
물며 非法이쓰녀 [知我說法이 如策喻者 | 면 法尙應捨 | 아니 何況非法이

7) 이현희(1982)에서는 '-이쓰녀'와 '-이션'으로 끝나는 문장은 그 성질이 다르고 통합 양상도 다른 것임을 밝히고 '-이쓰녀' 형을 '비교구문'으로, '-이션' 형을 '가정구문'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션' 형의 통합 양상으로 규정된 곳에서 '-이쓰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승희(1996)에 따르면 구결자료에서는 '-이쓰녀'의 선대형이라 고 할 수 있는 구결 '-七ホ-, -七八-'가 가정구문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 (金剛上: 39)

- ㄴ. 坐如來 滅後에 好다가 이 經 듣고 허디 아니^{하야} 隨喜心 니르와^드면 반
드기 알라 허마 기피 信解^호 相이 드^외니 허물며 널그며 외와 受持^호리^쓰
녀 [又復如來滅後에 若聞是經^호고 而不毀此言^{하야} 起隨喜心^하면 當知已
爲深信解相이니 何況讀誦受持之者 | 쓰녀] (法華5: 199)
- ㄷ. 南閣浮提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쪼리어나 … 부엇과 出家^호야도 八萬四
千浮圖寶塔 세요모라와 더어 現世父母도 百年을 福樂^호며 七代先亡도 淨
土에 나리니 허물며 제 善提心을 發^호니^쓰녀 (月釋23: 76~7)
- ㄹ. 내 饑悔호리이다 이리 허면 몸과 모슴께 清淨^호리니 허물며 禪定解脫이
시후 이슈미^쓰녀 (月釋23: 94)

이들 예를 통해서 '-이^쓰녀'의 선행어로 명사구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에서는 명사 '非法'에 '-이^쓰녀'가 통합되어 있다. (1-ㄴ)의 '受持^호리^쓰녀'는 대략 [[[受持^호+을][#]이]]+이^쓰녀] 정도의 내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바, 의존명사 '이'에 '-이^쓰녀'가 통합되어 있다. 이는 후행하는 '이' 사론^문 如來를 頂戴^호미 드^외니^라'의 '이 사론'과 구결 '…者 | 쓰녀'를 고려할 때 분명해 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1-ㄷ)에서도 의존명사 '이'가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ㄹ)에서는 '-이^쓰녀'가 명사구 [[^호물며 禪定解脫이 시후 이시]-음]에 통합되어 있어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도 선행어로 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선행 요소와 '-이^쓰녀'의 통합 양상은 'NP-이^쓰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쓰녀' 구문의 구조에 있어서 눈에 뜨이는 사실은, 이 'NP-이^쓰녀'가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문의 후행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1)은 모두 연결어미 '-으니'에 의한 접속문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NP-이^쓰녀'가 사용된 구문에 나타나는 연결어미가 '-으니'만 있는 것은 아니다.

- (2) ㄱ. 혼 사론 勸^호야 가 法 듣게 혼 功德도 이 玄^호곤 엉데 ^호물며一心으로
드려 니르며 널그며 외와 大衆의^기 늘 爲^호야 選^호야 니르며 말다이 修行
^호리^쓰녀 [勸於一人^호야 令往聽法^기 혼 功德도 如此^호곤 何況一心으로 聽
說讀誦^호야 而於大衆에 爲人分別^호며 如說修行^이^쓰녀] (法華6: 15)
- ㄱ'. 혼 사론^물 勸^호야 가 法을 듣고 혼^야도 功德이 이러^커니 ^호물며一心으로
드려 널그며 외와 大衆의^거기 늘 위^호야 選^호야 니르며 말다하 修行^호

느니쓰녀 (釋詳19:8)

- ㄴ. 흠마 심히 치운 드리 갓갑거늘사 흠물며 기리 여회에는 모수물 디내요미
쓰녀 (杜初25:17)
- ㄴ'. 中原에도 사화 두토미 있는니 흠물며 狹과 다못 戎의개 이슈미쓰녀 (杜
重5:29)

위의 예에서 'NP-이쓰녀'가 '-으니', '-곤', '-거늘사' 등의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문 구성의 후행절 부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결어미들은 모두 선행절의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 후 후행절과 접속시키는 의미 기능을 가진 연결어미들이다. (2ㄱ')은 (2ㄱ)과 동일한 원문을 언해한 것으로 당시 화자들이 이러한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의미론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곤'과 '-으니'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ㄴ)과 (2ㄴ')에서는 거의 유사한 문장 구조에 대해 한 곳에서는 '-거늘사'를, 한 곳에서는 '-으니'를 사용하고 있다.⁸⁾ 특히 (2ㄴ)의 '-거늘사'는 연결어미 '-거늘'에 강세의 보조사 '-사'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때의 '-거늘'은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 [전제]의 의미를 '-사'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NP-이쓰녀'는 선행절에 나타나는 사실에 대한 [전제]가 매우 강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⁹⁾ 그리고 이상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쓰녀'가 통합되어 있는 후행문에는 거의 대부분 부사 '흐물며'가 나타나,¹⁰⁾ 이

8) (2ㄴ')의 예는 《杜詩諺解》 중간본의 예이기는 하지만 《杜詩諺解》 중간본의 보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간본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 '-으니', '-거늘'이 [전제]의 의미도 가진 연결어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현희(1994:62~74)를 참고할 수 있다. '-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고'와 '-은'의 통합으로 파악하거나 [양보]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정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전자의 견해는 '-곤'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는 [양보]라는 용어는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곤'이 사용되는 문맥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제]의 의미로 선·후행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곤'을 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선엽(1996:57~58)에서도 향가 자료에서 '-니'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향가 자료나 고려가요에서는 '-니'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에 '-곤'이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10) 이인모(1977)에서는 이렇게 '-이쓰녀'가 통합된 후행절에 나타나는 부사를 중심으로 '흐물며-구문', '흐다가-구문'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이쓰녀'가 통합된 후

미 사실로 전제되어 있는 선행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후행 내용이 사실임에 틀림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이쓰녀' 구문의 구조 : [s [s … -니/곤/거늘사] [-, (흐물며) [NP [...]]-이쓰녀]]]¹¹⁾

그런데 '-이쓰녀' 구문이 (3)과 같은 구조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V-거니쓰녀'의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4) ㄱ. 번드기 洪華 | 아니어늘사 褐 물며 道記와 果記와 달오미 잊거니쓰녀 [灼非法華 | 어늘사 況有道記와 果記之異쓰녀] (楞嚴) : 17~18)

ㄴ. 모초매 銜懶 시르미 업스니 聖聽이 褐 물며 仁心이 하시거니쓰녀 (杜初) : 24)

ㄷ. 色과 空 꽃 밖과 이슬 디 아니어늘사 褐 물며 空이 쏘 밖기 잇디 아니커니쓰녀 [何不應存於色空之外어늘사 況空이 又非有外也 | 쓰녀] (楞嚴) : 34)

ㄹ. 바미 고래 지여 드로미 숨바당 드위해께서 쟈르니 厥王의 代 𩔗豆미 어루아줌 나죄 쟈르미어니쓰녀 [... 厥王代謝] 可唯眞暮 | 아니쓰녀] (楞嚴) : 16)

이들 예에서 나타나는 '-이쓰녀' 구문은 (3)과는 다른 구조를 보여 준다. 이들 문장이 연결어미 '-으니', '-거늘사' 등에 의한 접속문의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이 후행절 부분에 부사 '흐물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1), (2)의 예와 일치 하지만, 후행절 부분은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가지는 문장으로 그 구조를 대략 [s (흐물며) … V-거니쓰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이쓰녀'가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며 '-이쓰녀' 앞에 항상 선어말어미 '-거-'와 '-니-'의 통합체로 알려져 있는 '-거니-'가 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예들과는 사뭇 다른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이때의 '-니-'가 선어말어미가 아님은 뒤에서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15세기에는 극히 드물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오히려 후술할

행절에는 '흐물며'가 주로 나타나며, '-이쓰'가 통합된 후행절에는 주로 '흔다가'가 통합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11) 여기에서 'NP-이쓰녀'의 문법적 범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이쓰녀'의 문법적 지위 및 분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바와 같이 '-이쏜'이 주로 나타난다.¹²⁾ 따라서 여기에서는 'V-거니쓰너' 유형은 전형적인 '-이쓰너' 구문은 아닌 것으로 보고 'NP-이쓰너' 유형만을 전형적인 '-이쓰너' 구문으로 다루기로 한다.¹³⁾

2.2. 수사의문문과 '-이쓰너' 구문

지금까지 '-이쓰너' 구문은 주로 수사의문문으로 다뤄지거나 수사의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이쓰너' 구문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수사의문문과 관련을 지울 수 있는 문장임을 파악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쓰너' 구문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와 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수사의문문의 구조와 의미상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 ㄱ. 光明을 보습고 몰라 주구려 흔니 과 아니 어엿보니잇가 (月曲上 其103)
- ㄴ. 道로 보건텐 즈마도 흐리며 내야도 흐리며 서비 쓰려 쉬구에 브리며 袞衣
니페 石櫛에 드료미 아니 올흔니 업거니 엇데 술며 무두를 것구리오 (月釋
18: 40)
- ㄷ. 흔다가 서르 아를 둔덴 엇데 밤과 이시리오 (楞嚴1: 55)
- ㄹ. 太子 | 우스며 널오더 내 므스 거시 不足호료 (釋詳6: 24)
- ㄹ'. 楊子江南을 꺼리사 使者를 보내신들 七代之王을 뉘 마그리잇가 (龍歌
15장)

12) 이인모(1977), 이현희(1982), 이승녕(1985)에서는 '-이쓰너'와 '-이쏜'으로 종결된 문장 구조의 차이점을 밝혀 그 구조를 각각 공식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13) 전형적인 'NP-이쓰너' 구문의 '-이쓰너'와 'V-(리)거니쏜'의 '-이쏜'(-이쏜' 구문에 대해서는 후술됨)은 외형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행 성분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상, 외형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화자들이 이 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들을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태소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이쓰너' 쪽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형태소 통일이 이루어져 '-이쏜'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이쓰너'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쓰너'의 후대형으로 보이는 16세기 이후의 '-이쓰나'가, 15세기의 '-이쓰너'가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NP-이쓰너'와 같은 환경에서보다는 '-이쏜'이 나타나는 환경인 'V-(리)거니'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15세기에 예외적으로 나타나던 형태소 통일 경향이 16세기에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云”。이 體中에 能히 琉璃 積호야 죠고맛 그린 것도 잇디 아니호면 뉘 깃거 보디 아니호리오 [於是體中에 能如琉璃호야 不容纖翳호면 則孰不喜見호리오] (法華6: 57)

口. 舍利佛아 十方世界中에 오히려 두 乘이 업거니 엇데 旱물며 세히 이시리 오 [舍利佛아 十方世界中에 尚無二乘커니 何況有三이리오] (法華1: 186)

口'. 舍利佛아 十方世界에 二乘도 업거니 旱물며 세히 이시리여 (釋詳13: 56)

口. 舍利佛아 그 부enty 나라해 惡道人 일홈도 업거니 旱물며 貞實이 이시리여 [舍利佛아 其佛國土에 尚無惡道之名커니 何況有實아] (阿彌: 11)

人. 旱마 디나 得旱안 오히려 住호미 맛당티 아니호 旱물며 生天돌lett 法을 즐거 著호리여 [既得過已旱안 尚不應住] 온 何況生天等法을 而得樂著가] (金剛上: 407)

○. 龜蒙도 亦히 보디 몽호리로소니 旱물며 故鄉을 스랑호리아 (杜初25: 6)

위의 예들은 중세국어의 수사의문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수사의문문은 전통적으로 의문문의 한 유형으로서 설명문적인 의문문 정도로 인식되어 온 문장 유형인바,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서술적 표현을 더욱 강조하여 나타낸 문장을 가리킨다.¹⁴⁾ 이러한 수사의문문의 그조를 보면 접속문적 성격을

14) 수사의문문을 포함한 특수의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정수(1992, 1994: 337~345)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의문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통사적 구조나 의미론적 특성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듯하다. 수사의문문은 부가의문문, 반향의문문 등과 함께 특수의문문의 한 유형으로서 서술문의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더욱 강조한 문장이라는 정도의 상식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을 뿐 수사의문문이 과연 의문문적인 성격이 강한 문장인지, 아니면 평서문적인 성격이 더욱 강한 문장인지 하는 문제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병희(196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의문사와 의문법 종결어미(이하 의문법 어미)와의 호응상 예외는 그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이어서 더 이상 의문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던바, 이 설명은 수사의문문의 성격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의 통사·의미론적 성격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박영순(1991)에서는 반향의문문, 자문 등을 의문성의 정도가 가장 약한 의사의문문으로 보고 그것들을 두루 포괄하는 명칭으로 수사의문문이라 부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과연 반향의문문, 자문 등을 수사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의문성의 정도만으로 의문문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동일한 수사의문문으로 분류된 의문문들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령문적 의문문과 자문, 반향의문문 등의 의문성의 정도 차이도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수사의문문을, 본질적으로 의문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되 서술적인 의미가 더욱 강한 문장 정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속문의 후행절에 나타나는 수사의문문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판단의 근거로서 어떠한 상황이 전제되어 선행절에 제시되고 있다. (5ㄱ, ㄴ), (5ㅁ, ㅂ), (5ㅇ)에서는 수사의문문으로 표현되는 내용의 판단 근거가 [전제]의 연결어미 '-으니'에 의해서, (5ㄷ)은 강한 [조건]의 '-옳단댄'에 의해서, (5ㅅ)에서는 [전제]의 '-곧'에 의해서 선행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ㄹ)에서는 수사의문문으로 표현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내太子이어늘/太子이로니' 정도의 전제가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전제는 이 발화를 하는 태자의 머리 속에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에서 전제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경우 문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5ㄹ'),¹⁶⁾ (5ㄹ'')는 일견으로는 각각 [양보]의 '-온돌', [조건]의 '-으면'에 의해 수사의문문의 전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온돌', '-으면'에 의해 나타난 선행절의 내용은 (5ㄱ-ㄷ), (5ㅁ-ㅇ)에서 '-니, -곧, -옳단댄'에 의해 선행절에 표현된 전제와는 성

-
- 15) 수사의문문의 결과적 서술 내용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전제가 반드시 표면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과 청자 사이에 수사의문문에서 서술하는 내용의 전제가 이미 공유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전제는 표면에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가 문장의 표면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화용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16) (5ㄹ')의 예는 '뉘'라는 의문사가 있으므로 설명 의문의 종결어미 '마그리잇고'가 기대되는데 '마그리잇기'로 나타나고 있어 의문사와 의문법 어미가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안병희(1966)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수사의문문으로서 더 이상 의문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서정목(1987: 303)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현희(1982: 52, 85~89)에서는 의문사와 의문어미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이 모두 수사의문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의문법 어미가 '-니잇가, -리잇가' 형으로 통일되어 가는 역사적 변화 과정 상의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엊던 짜히잇가 (月釋21:24ㄴ)'는 '無毒'이라는 鬼王이, '묘호실씨 菩薩이 엊던 緣으로 예 오시 니잇고'라는 聖女의 물음에 대해 다시 되물은 것으로서 수사의문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인데도 의문사와 의문법 어미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원문에 대해 다른 문헌에서 수사의문문으로 번역한 (5ㅁ)과 (5ㅁ')의 예에서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아'계 의문법 어미와 '-오'계 의문법 어미가 규칙적으로 교체되는 등 수사의문문에서도 의문사와 의문법 어미와의 호응 현상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수사의문문은 형식에 있어서는 물론 통사적인 현상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문문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격이 다른 것이다. 이들 내용은 수사의문문으로 표현된 내용이 성립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로 여기에서 전제는 (5근)과 마찬가지로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한 수사의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편의상 의문법 어미는 ‘-리오’로 제시한다.

(6) 수사의문문의 구조 : [s [s … -니/곤/을/던데] [s … -리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수사의문문의 구조가 앞서 (3)에서 확인한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5□-○)에서는 접속문 구성의 후행절 요소에 ‘흐물며’라는 부사가 나타나는 점까지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수사의문문의 구조 가운데에는 ‘-이쓰녀’ 구문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의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이 ‘-이쓰녀’ 구문과 관계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본질적으로 접속문 구성을 지니는 수사의문문은, 선행절의 전제와 후행 서술 내용 사이의 논리·의미적 관계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어에 전혀 성격이 다른 단어가 올 수 있다.

(7) 그 聖人へ 言行마다 法이 겨샤 혼갓 末代를 گ르치사 손발 스라 福求 헤라
흐샤미 아니니 이를 불기 아디 몽고 얼구를 흐아브리며 더러본 것 술면 乃
終애 모스기 有益 헤리오 (月釋18:45)

ㄴ. 그때 世尊이 舍利佛드려 니른샤더 네 흐마 보즈러니 세 번 請커니 엇데
니른디 아니 헤리오 (法華1:170)

ㄷ. 六師의 무리 閻浮提에 乙毒호야도 내 바랫 흔 터리를 몯 물으리니 모수
이를 것고오려 흐눈고 (釋詳6:27)

(7)' 그 舍利佛아 그 부덧 나라해 惡道へ 일홀도 업거니 흐물며 眞實이 이시리
여 (阿彌:11)

ㄴ. 龜蒙도 可히 보디 물 헤리로소니 흐물며 故鄉을 소랑 헤리아 (杜初25:6)

위 (7)의 예들은 접속문 구성으로 이루어진 수사의문문으로서 결과적인 후행절 서술 내용(이하에서는 후행절 서술 내용으로 부름)에¹⁷⁾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전제가 선행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선행절의 전제와 후행절 서술

내용간의 의미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7ㄱ)의 전제인 “성인의 가르침이 손발을 살라서 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님”은 후행절 서술 내용인 “몸을 해치고 더러운 몸을 사르면 아무런 이익이 없음”과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7ㄴ)의 전제 “네가 세 번을 열심히 청했음”은 후행절 서술 내용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음”과, (7ㄷ)의 “六師의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 팔의 한 텔 오라기도 움직일 수 없음”은 “어떤 일로도 나와 겨룰 수 없음”과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전제와 후행 서술 내용은 간접적인 논리·의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선·후행절 서술어는 서로 아무런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격이 전혀 다른 단어들이다. (7ㄱ)의 ‘求호라 旱샤미 아니-’와 ‘有益호-’, (7ㄴ)의 ‘請호-’와 ‘니르디 아니호-’, (7ㄷ)의 ‘물 무으-’와 ‘겼고오려 旱-’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비해 (7)'에서는 선행절 내용과 후행절 내용이 대비되는 것으로, 선행절의 전제가 후행절 서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곧 (7'ㄱ)의 서술 내용은 “부처의 나라에는 악도의 이름조차 없음으로 미루어 진실이 없음은 당연하다” 정도로 “이름조차 없음”은 “진실이 없음”을 성립하게 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선행절 내용과 후행절 내용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7'ㄴ)에서도 “龜山과 蒙山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더 멀리 있는 고향을 생각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 “고향보다 가까이에 있는 龜山과 蒙山도 볼 수 없음”은 “더 멀리에 있는 고향을 생각할 수 없음, 또는 고향을 생각할 계제가 아님”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7'ㄱ)의 선·후행절 서술어 ‘없-’과 ‘이시/잇-’, (7'ㄴ)의 서술어 ‘보디 몬호-’와 ‘스랑호-’ 등과 같이 서로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17) 수사의문문의 결과적 서술 내용은,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된 명제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고성환(1987: 64~65)에서는 수사의문문의 논리 의미 구조를 이접적인 구조[S(Si, ~Si)]에 표면적인 질문과는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담은 운용소[RH(Si) 또는 RH(~Si)]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수사의문문의 전체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문어미가 포함된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고에서의 후행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논리 의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후행절의 내용이 대비됨으로써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내용의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의미 관계는 '-이쓰녀' 구문의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바로 이러한 수사의문문이 '-이쓰녀' 구문과 관계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수사의문문에서 선행절의 서술어와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는 후행절의 서술어를 생략하고, 선행절 내용과 대비되는 문제의 명사구만을 남겨 수사의문문과 유사한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이쓰녀' 구문인 것이다(이현희, 1982: 58~59).

- (8) 그. 오직 아버님 病이 耽호실시언명 모물 百千 니위 버려도 어렵니 아니호니
흐물며 이 더러본 모미쓰녀 (月釋21:216)
 - ㄴ. (이 善女人이) 百千萬劫에 女人 있는 世界에 다시 나디 아니호리니 흐물
며 죄 女身 受호미쓰녀 (月釋21:86)
 - ㄷ. 提婆達多 | 디나간 뒤에 상네 모단 므숨 머거 나를 헐어든 내 忍辱力으
로 상네 어엿비 너겨 恩惠를 펴 거리치다니 흐물며 이제 부터 드외옛는 전
기쓰녀 (月釋22:68~69)
 - ㄹ. 莊子도 오히려 그러콘 흐물며 道人이쓰녀 (永嘉下:122)
 - ㅁ. 데 貪嗔癡 | 玆조더 神力이 오히려 이 군忿 흐물며 法界慧 | 具足自在
력이쓰녀 (法華6:101)

이들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행절의 전제와 후행절 요소의 결과적 서술 내용 사이의 논리·의미적 관계는 (7)'과 같은 수사의문문의 논리·의미적 관계와 같다. 우선 위 예문 각각의 전제는, (8ㄱ)에서는 “오직 아버님 병이 낫게 된다면 몸을 백천 번 버려도 어렵지 않음”이고, (8ㄴ)은 “이 선여인이 백천만 겁 동안 여인이 있는 세계에는 다시 나지 않음”, (8ㄷ)은 “提婆達多가 지난 세계에서 항상 나에게 해악을 가해도 그를 불쌍히 여겨 제도했음”, (8ㄹ)은 “莊子도 그러 함”, (8ㅁ)은 “저 사람이 貪嗔癡를 가지고 있어도 神力이 이와 같음”이다. 후행 절 부분의 결과적 서술 내용은, (8ㄱ)에서는 “이 더러운 몸은 더더욱 버리기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고, (8ㄴ)에서는 “여인의 몸을 받는(여인으로 태어나는) 일은 없다”, (8ㄷ)에서는 “부처가 되어 있는 지금은 더더욱 제도할 수 있다”, (8ㄹ)에서는 “道人은 더욱더 그러하다”, (8ㅁ)에서는 “저 사람이 法界慧가 갖추어진 自在力이 있으므로 더더욱 이와 같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쓰

'녀' 구문의 후행절 부분의 서술어는 전제가 제시된 선행절의 서술어와 상관 관계를 지닌 것이며, 후행절 내용이 선행절 내용과 대비됨으로써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7)'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앞의 (7'ㄱ)과 (7'ㄴ) 각각의 후행절은 '흐물며 眞實이쓰녀', '흐물며 故鄉이쓰녀' 등의 '-이쓰녀' 구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렇게 '-이쓰녀' 구문이 수사의문문과 관련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 표현 효과도 수사의문문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편의상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9) ㄱ. 내 說法이 策로 가줄봄 道호물 알면 法도 오히려 반드시 보를 떠어니 흐
물며 非法이쓰녀 (金剛上: 39)

ㄴ. 舍利佛아 十方世界中에 오히려 두 乘이 업거니 업에 흐물며 세히 이시리
오 (法華1: 186)

위 (9ㄱ)은 “내 설법이 뗏목으로 비유한 것과 같음을 알면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릴 것인데 하물며 비법이야 버리지 않겠느냐?(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버리는 것이 당연하구나)” 정도로 해석된다. 곧 (9ㄱ)에 대해서 의문문(수사의문문)적인 해석과 평서문적인 해석, 감탄문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후행절 내용을 더욱더 강조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 (9ㄴ)도 “사리불아, 사방 세계 가운데 오히려 두 乘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세 乘이 있겠느냐?(없음이 당연하다)” 정도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후행절 요소의 내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쓰녀' 구문과 수사의문문은 모두 접속문의 후행절의 결과적인 표현 내용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유사한 표현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쓰녀'가 가지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본원적으로 수사의문문이 가지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18)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쓰녀' 문장이 쓰일 수 있는 구조의 구문이 의문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儒典도 오히려 히물 다아 아비 섬기며 모물 보려 님금 섬기게 콘 흐물며 法 為호용가 [儒典도 尚令竭力事父 히며 致身事君콘 何況爲法가] (圓覺下3-1: 88)' 등이 그런 예인데 이 문장은 구조상 '爲호요미쓰녀' 혹은 '爲호미쓰녀'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보면 수사의문문과 '-이쓰녀' 구문은 본질적으로 접속 문 구성을 가지는데, 수사의문문은 선행절에 나타나는 전제와 후행절의 서술 내용 사이의 논리·의미적 관계가 아주 폭넓은 것으로 전제가 문장 표면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선행문 서술어와 후행문 서술어 사이에서 반드시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의문문 가운데 선행절 내용과 후행절 내용이 서로 대비되어 해석됨으로써 선후행절의 서술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사의문문에서 나온 특이한 구문이 '-이쓰녀'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쓰녀' 구문은 선행절의 전제와 후행절 서술 내용 사이의 논리·의미적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문장 표면에 나타나며 선행문 서술어와 의미 해석상 설정되는 후행문 서술어는 일치하거나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쓰녀' 구문의 성격에 대한 암시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사실들은, '-이쓰녀' 구문을 전제가 나타나는 선행절의 문장 구조나 문장 구성 요소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문맥적 생략문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¹⁹⁾

2.3. '-이쓴' 구문과 '-이쓰녀' 구문

우리는 앞서 '-이쓰녀' 구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V-거니쓰녀' 형을 전형적인 '-이쓰녀' 구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구조는 오히려 '-이쓴'이 나타날 문장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 암묵적으로 '-이쓴' 구문과 '-이쓰녀' 구문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몇몇을 제외하면 '-이쓰녀'와 '-이쓴'을 동일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취급하거나 '-이쓰녀'를 단순히 '-이쓴'에 조사 '-이여'가 통합된 것으로 파악해 왔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가운데 '-이쓰녀' 구문과 '-이쓴' 구문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힌 것도

19) '-이쓰녀'를 일반적인 문맥적 생략문과 완전히 동일한 생략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쓰녀' 구문은 일반적인 생략문과는 달리 문장을 종결시키는 문법적 장치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쓰녀' 구문은 그 자체로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떤 기제를 가진 일종의 문맥적 생략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쓴' 구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쓰녀' 구문의 성격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없지 않으나, '-이션' 구문의 성격과 '-이션'의 문법적 지위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²⁰⁾

- (10) ㄱ. ほ다가 아로미 업술딘댄 모츠매 草木 ほ거니션 [若無知者]던 終如草木 거니션] (楞嚴3: 41)
 - ㄴ. ほ다가 空에 날딘댄 虛空이 제 맛 보논디라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언니션 [若虛空에 出인댄 虚空이 自味라 非汝의 口知어니션] (楞嚴3: 10~11)
 - ㄷ. ほ다가 오며 가미 업술딘댄 쏘 다시 드로미 업스려니션 [若無來往인댄 亦復無聞이어니션] (楞嚴3: 23)
 - ㄹ. (ほ다가) 空으로 아로물 사물딘댄 空이 제 아디위 고기는 반드시 몰 허려니션 [以空으로 爲知]던 空이 則自知호디위 肉은 應非覺이어니션] (楞嚴3: 44)
 - ㅁ. (ほ다가) 아로미 몸쓰미에 이술딘댄 모수미 能히 아디 몰 허려낫도 [覺이 在身際]던 心이 不能知호려낫도] (楞嚴1: 55)
 - ㅂ. 提婆達多 | 阿闍世王과 사파더니 널오더 네 새 王 드외아라 나도 새 부터 드외오져 헌노라 阿闍世 널오더 父王이 겨시거낫도 (月釋22: 69)

일반적으로 '-이션'은 가정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위의 (10-ㅁ)을 통해서도, '-이션' 구문은 대부분 가상의 의미기능을 지닌 어미 구조체 '-옳딘댄'으로 이끌리는 선행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안에 가정을 의미하는 부사 'ほ다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션'이 가정구문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²¹⁾ 이를 예를 통해 볼 때 '-이션' 구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옳딘댄' 등 조건의 연결어미로 이어진 접속문 구성을 이루며 후행절에서는 '-이션' 앞에 선어말어미들의 통합체인 '-거니-', '-려(←리+어)니-'가 항상 선행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후행절의 선어말어미들의

20) 물론 '-이션' 구문과 '-이션' 구문의 차이점은 이현희(1982)에서 명확히 규명되고 그 차이점이 강조된 바 있다. 또한 김승곤(1975, 1986) 등에서는 '-이션'은 한문의 '若/假/如/儻…(則)'과 같은 가설형 구문에 사용되었음과 '-이뜨너'는 '況/何況…(乎)'의 억양형 구문에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여 그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 외에 새로이 언급할 만한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1) 그러나 김승곤(1986)에서와 같이 '-이션'이 "가정"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어떤 문장에 이 형태소가 쓰이면 그 문장이 가정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션' 구문에서 '-이션'을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장은 "가정"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통합체로 보이는 부분은 앞서 (4)의 예에서 살펴본 바 있는 ‘V-거니쓰녀’ 형의 ‘-이쓰녀’ 구문에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선 선·후행절 내용의 논리·의미적 관계와 이로 인해 결과되는 서술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쓴’ 구문은 ‘-이쓰녀’ 구문보다는 오히려 수사의문문의 구조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10B)의 예는 ‘-이쓴’이 반드시 앞서 논의한 구조의 문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접속문 구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父王이 계시니 내가 어찌 새 왕이 될 수 있겠는가?(父王이 계시니 내가 새 왕이 되기 어렵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쓴’이 통합된 부분은 접속문의 선행절에 해당하고, ‘엇데 내 새 王 드외리오’ 또는 ‘내 새 王 드외요미 어려우니라’ 정도의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0)의 나머지 문장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곧 (10ㄱ)에는 ‘엇데 (흐물며) 아로미 업스리오’ 또는 ‘반드기 아로미 잇느니라’, (10ㄴ)에는 ‘엇데 (흐물며) 空애 나리오’ 또는 ‘반드기 空애 나디 아니흐느니라’, (10ㄷ)에는 ‘엇데 (흐물며) 오며 가미 업스리오’ 또는 ‘반드기 오며 가미 잇느니라’, (10ㄹ)에는 ‘엇데 (흐물며) 空으로 아로몰 사므리오’ 또는 ‘반드기 空으로 아모몰 삼디 아니흐느니라’, (10ㅁ)에는 ‘엇데 흐물며 아로미 몸쓰식예 이시리오’ 또는 ‘반드기 아로미 몸쓰식예 잇디 아니흐느니라’ 정도의 후행절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결국 ‘-이쓴’ 구문은, 문면에 나타난 접속문 구성 전체가 또 하나의 선행절이 되는 더 큰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그 후행절 부분은 생략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후행절 내용은, 문면에서 ‘-이쓴’ 구문의 선행절에 나타난 가정 내용과 완전히 역의 관계에 있는 내용이 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쓰녀’ 구문과 ‘-이쓴’ 구문의 차이점은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이쓴’ 구문은 수사의문문이나 ‘-이쓰녀’ 구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서문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내용보다 그 서술 내용을 더 욱더 강조한 것이다. 단 ‘-이쓴’ 구문은 결과적으로, 문면에서 ‘-이쓴’ 구문의 선

22) 이러한 사실은 ‘-이쓴’의 문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볼 때도 매우 시사적이다.

행절에 제시된 내용이 성립할 수 없음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쓰너' 구문이나 수사의문문과는 다른 표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 가운데 몇몇만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해 보면, (10ㄱ)은 일반적인 평서문 형식을 띤 '호다가 아로미 업悛단댄 모초매 草木 굽거다'가 표현하는 내용보다 그 내용을 더욱더 강조한 것으로, 결국 문면의 선행절에 제시된 가상적인 조건('호다가 아로미 없음')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ㄴ)은 '호다가 空에 날던댄 虛空이 제 막 보논디라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어니라'가 표현하는 내용보다 그 내용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문면의 가상적인 조건 ('호다가 空에 날')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내용의 강조는 특히 어미 구조체 '-옳딘댄'과 후행절 부분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거-'에 의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옳딘댄'에서 보이는 조건의 연결어미 '-온댄'은 주로 가상의 내용을 선행절 명제 내용으로 하여 선·후행문을 접속시키되, 현대 국어의 '-다면'과 유사하게 그것을 객관적 조건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연결어미인바,²³⁾ 후행절 서술 내용의 전제가 되는 가상의 내용이 객관성을 띤 것으로 제시된 후 후행절에는 화자의 확신 등을 담은 확인법의 선어말어미 '-거-'가 나타나 결국 서술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림없음을 더욱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쓰' 구문이, 수사의문문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평서문보다 표현 내용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문장임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이쓰'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이쓰' 구문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쓰'의 문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이쓰'의 문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쓰'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종결어미', '보조사' 등으로 파악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조사'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이쓰' 구문을 '보조사'가 통합되어 문장이 종결되는 특이한 문장 정도로 파악해 온 듯하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해석들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

23) '-온댄'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졸고(1991: 45~50)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실이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션'의 성격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션'을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이션'으로 종결되는 문장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간혹 '-이션' 구문을 '-이션녀'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 반어법 즉 수사의 문문으로 다루는 견해도 있지만, 앞에서 '-이션' 구문이 수사의문문의 결과적 서술 내용과 일치하는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수사의문문은 아님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또한 '-이션'을 종결어미로 파악하게 되면 종결어미의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법 기술의 부담이 되기도 하거니와 형태상으로나 의미상으로 동질성을 보이는 보조사 '-이션/잇돈'과는 또 다른 문법적 요소로 기술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션'을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견해보다 보조사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 견해도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이션' 구문의 '-이션'을 다음 (11)에서와 같은 강조 또는 강세의 보조사 '-이션/잇돈'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11) 그. 혼 날 빨을 좌샤 술히 여위신돌 金色잇돈 가시시리여 (月曲上 其62)

ㄴ. 구스리 바회예 디신돌 긴혔돈 그츠리잇가 (樂章歌詞, 鄭石歌)

ㄷ. 值잇돈 아줄가 值잇돈 그츠리잇가 (樂章歌詞, 西京別曲)

그런데 (10)에서와 같은 '-이션' 구문의 '-이션'을 (11)에서의 '-이션/잇돈'과 동일한 보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션'이 통합되어 있는 문장을 종결형 또는 연결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조사가 용언에 통합될 때에는 그 용언의 종결형이나 연결형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에서 '-이션'이 통합된 선행 요소인 '곧거니', '아니어니', '업스려니', '몰흐려니', '거시거니' 등을 종결형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는 청자 대우의 등급상 이른바 반말체 문장이 되는데, (10ㄱ-ㅁ)의 예문이 부처가 阿難에게 설법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또한 '-이션'이 주로 이렇게 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인 《楞嚴經諺解》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²⁴⁾

24) 이른바 반말체 문장의 청자 대우 등급은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흐라체'의 대우 등급보다는 청자를 더 대우한 것이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션'이 통합되어 있는 요소는 적어도 종결형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션'을 보조사로 볼 때, '-이션'의 선행 요소는 용언의 연결형일 가능 성밖에 남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션'의 선행요소를 용언의 연결 형으로 파악한 견해는 찾기 어려운데, 이것은 아마도 'V-거니션'으로 문장이 종 결된다는 사실에 이끌려 'V-거니션'에서의 '-거-'와 '-나-'를 모두 선어말어미로 파악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거-'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나-'를 선어말어미로 규정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데, '-나-'를 선어말어미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션'을 종결어미로 파악함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다.²⁵⁾ 더욱이 '-이션'을 보조사로 파악하는 견해를 지니면서도 '-나-'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션'의 선행 요소가 용언의 연결형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예가 바로 위의 (10b)과 같은 예문이다. 앞서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0)과 같은 예에서의 '-거니션'은 그 자체가 문 종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접속문의 선행절에 해당하고 후행절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서 일단 우리는 '-이션'의 선행 요소가 용언의 연결형일 가능성은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션'의 선행 요소에서 종결어미로 보이는 요소가 '-으니'라는 사실도 본 고의 견해를 더욱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곧 연결어미 '-으니'는 [전 제]의 의미도 가지는데, 이 [전제]의 '-으니'는 텍스트의 의미 단락을 만드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²⁶⁾ 위 (10ㄱ-ㅁ)의 예문들은 모두 부처

부처가 阿難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는 『楞嚴經譯解』에서는 부처가 阿難에게 '阿難아 반드시 알리'와 같은 '흐라체' 문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압적인 어투와 함께 쓰이고 있는 (10)의 '-이션'을 '흐라체'보다 청자를 더 대우한 이른바 반말체의 종결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5)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때의 '-나-'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하면서도, '-이션'이 종결어미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미 앞서 '-이션'이 종결어미일 가능성에 회박함을 살펴보았다.

26) 연결어미 '-으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의 자세한 내용은 이현희(1994: 62~65), 황선엽 (1996)를 참조할 수 있다.

가 阿難에게 비유 등을 통해 설법하는 부분으로, 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위치에 나타나 각각의 의미 단락이 완결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장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V-거니싼'은 용언 어간에 선어말어미 '-거-'와 연결어미 '-으니', 그리고 강조 또는 강세의 보조사 '-이싼'이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이싼' 구문의 '-이싼'을 형태·의미상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조사 '-이싼'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쁘녀' 구문과 구별되는 '-이싼' 구문의 성격과 '-이싼'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곧 '-이싼' 구문은, 표면적인 선행절 내용에 대한 역의 관계에 있는 명제 내용을 후행절로 한 더 큰 접속문 구성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일종의 문맥적 생략문으로서, 의미 단락을 완결시키는 '-으니'에 의해서 앞서 서술한 내용을 완결시키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이싼'을 통합시킴으로써 종결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싼' 구문은 일반적인 평서문보다 그 서술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제시하는 표현 효과를 가진다.

2.4. '-이쁘니잇가' 구문과 '-이쁘녀' 구문

여기에서 '-이쁘녀' 구문과 유사한 또 다른 구문인 '-이쁘니잇가' 구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이쁘니잇가'도 기존의 논의 속에서는 '-이쁘녀'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고 단지 '-이쁘녀'와 '-이쁘니잇가'는 청자 대우 등급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이승녕, 1985). 이러한 이해는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이쁘녀'와 '-이쁘니잇가'가 단순히 청자 대우 등급상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쁘녀'의 '-이여'를 '-이쁘니잇가'의 '-잇가'와 같은 의문법 어미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쁘녀'나 '-이여'를 종결어미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쁘니잇가' 구문의 예를 보도록 하자.

(12) ㄱ. hẳn가 이 施主 | 오직 大衆의게 一切 즐거운 거슬 주어도 功德이 그지 업거늘 흐물며 阿羅漢果를 得게 호미쓰니잇가 [...何況令得阿羅漢果 | 쓰니잇가] (法華6:9)

그'. 이고티 第五十人에 읊으며 읊마 法華經 듣고 隨喜功德도 오히려 無量無邊阿值紙은 흐물며 뜻 처럼에 會中에 듣고 隨喜호니쓰녀 [... 何況最初에於會中에 聞而隨喜者 | 쓰녀] (法華6:10)

ㄴ. 世尊하 오직 한 恒河뿐도 오히려 數 업곤 흐물며 그 물에쓰니잇가 [世尊하 但諸恒河도 尚多無數 | 온 何況其沙 | 잇가] (金剛上:62)

ㄷ. 哼마 命終囂 사르물 善惡 묻디 말오 내 이 사르물 惡道에 빠러다니 아니 캐 코져 呼노니 흐물며 제 善根 닷가 내 힘 더으리쓰니잇가 (月釋21:125)

이들 예를 통해 볼 때 문장의 구조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선행절 내용과의 관련성 등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쓰녀' 구문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곧 위 예문들은 연결어미 '-으니', '-곤', '-거늘' 등에 의해 이어진 접속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후행절에 '흐물며'라는 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행절이 'NP-이쓰니잇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도 후행절의 뒷부분에 선행절의 서술어와 동일한 서술어나 동일한 표현 가치를 지니는 서술어를 포함시켜, (12ㄱ)은 "...이야 더욱더 功德이 그지없습니다" 또는 "...이야 더욱더 功德이 그지 있겠습니까" 정도로, (12ㄴ)은 "...이야 더욱더 數가 없습니다" 또는 "...이야 더욱더 數가 있겠습니까", (12ㄷ)은 "...이야 더더욱 내가 惡道에 떨려지게 아니합니다" 또는 "...이야 내가 惡道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이쓰녀' 구문에서 확인했던 사실들과 동일하다. 특히 (12ㄱ)과 (12ㄱ)'의 비교를 통해서 '-이쓰녀'와 '-이쓰니잇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12ㄱ)은 부처의 물음에 대하여 미륵보살(彌勒菩薩)이 답하는 장면으로 '-이쓰니잇가'가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동일한 장면에서 부처가 미륵보살에게 설법하는 내용인 (12ㄱ)'에서는 '-이쓰녀'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문장은 거의 유사한 구조와 표현 가치를 지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단지 청자 대우 등급상의 차이만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쓰녀' 구문과 '-이쓰니잇가' 구문이 이렇게 구조나 의미에 있어서 동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쓰녀'와 '-이쓰니잇가'를 동일한 범주의 문법 형태

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이쓰녀'에 비해 '-이쓰니잇가'는 종결어미가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쓰녀'와 '-이쓰니잇가'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을 보면 '-이쓰녀(←이쏜+이여)'의 '-이여'와 '-이쓰니잇가(←이쏜+이잇가)'의 '-이잇가'임을 알 수 있다.²⁷⁾ 그런데 '-이여'가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선행 요소가 'NP+조사(NP+이쏜)'이어서 종결어미가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여'를 종결어미로 취급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비해 '-이잇가'의 경우는 선행 요소 'NP+조사(NP+이쏜)'에 계사 '(-)이-'가 통합되어 있어 의문법 어미 '-잇가'²⁸⁾가 통합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쓰니잇가'는 중간에 계사가 통합된 '이쏜#이+잇가'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사실은 특히 위 (12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언해문에서 '-(이)쓰니잇가'로 나타나 있는 원문의 구결문에서는 '- | 잇가'로 구결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

-
- 27) '-이쓰녀'에 대한 형태 분석 가능성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쓰녀' 전체를 조사나 어미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계사 '(-)이-'와 어미 '-쓰녀'로 분석하는 방법, 셋째 조사 '-이쏜'과 계사 '(-)이-', 어미 '-여' 또는 '-어'로 분석하는 방법, 넷째는 '-이쏜'과 '-이여'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넷째의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러한 형태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28) 이른바 '호쇼서체'의 의문법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와 통합될 때에는 '-니잇가 형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잇-'을 안병희(1965)에서는 공손법 형태소 '-이-'의 이형태로 취급하였고, 고영근(1981)에서는 '-니잇가'를 불연속 형태인 의문법 어미 '-니…가' 중간에 청자 높임의 형태소 '-잇-'이 끼어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선행어가 계사 '(-)이-'나 '아니-'인 경우에는 '엇데 호물며 長者 | …한가지로 大車를 주미잇가 (法華2:80ㄱ)', '世尊이 痘 쳐그시며 懈 쳐그샤 安樂行 흐시느니잇가 아니잇가 (法華5:91ㄴ)'에서와 같이 '-잇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 29) 중세국어에서 보조사와 계사의 통합이 과연 생산적인 현상이었느냐 하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중세국어에서 보조사와 계사와의 통합을 보이는 예는 혼치 않으며 이러한 통합이 보인다고 해도 몇몇 보조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혼치는 않을지라도 '如來 | 妙蓮華를 퍼시거늘 들판오라 許니 엇데 謹迦부니시리오 (楞嚴1:17)'와 같은 예에서 보조사와 계사의 통합이 가능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국어에서도 '너뿐이야', '이 책도야', '여기에서 해당자는 철수 만이야'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세국어에서 보조사와 계사와의 통합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쓰니잇가' 구문은 의문어미를 지닌 완전한 의문문(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쓰너'와 '-이쓰니잇가'의 '-이여'와 '-이잇 가'를 동일한 범주의 형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쓰니잇가' 구문과 '-이쓰너' 구문의 이러한 차이는 청자 대우의 필요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쓰너' 구문의 'NP-이쓰너'는 감탄조사가 통합되어 있는 명사구로서(후술될 '-이쓰너'의 형태 분석 참고) 이 자체로는 청자를 적절히 대우할 수 없다. 청자 대우의 형태소는 주로 종결어미에 기대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자를 대우할 상황에서는 '-이쓰너'가 지닌 구조와 수사의 문문적인 의미 해석을 유지한 채 청자 대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사를 통합시킨 것이 '-이쓰니잇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쓰너'의 형태 분석과 '-이쓰너' 구문의 성격

3.1. '-이쓰너'의 형태 분석

지금까지 '-이쓰너' 구문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오면서 우리는 '-이쓰너' 구문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쓰너'의 분석 문제와 이와 관련된 'NP-이쓰너'의 문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어 왔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유보해 왔던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쓰너' 구문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 보기로 한다.

앞서 우리는 '-이쏜' 구문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V-(리)거니쏜'에서의 '-이쏜'에 대해 어중에 나타나는 '-잇돈/이쏜'과 동일한 강조 또는 강세의 보조사로 파악했다. 또한 '-이쓰니잇가' 구문도 'NP+이쏜#이+잇가'의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이때의 '-이쏜'도 같은 보조사로 다루어 왔다. 결국 이러한 논의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견지해 온 태도는, '-이쓰너' 등에서 '-이쏜'이 앞의 'NP'나 용언의 활용형에 직접 통합되는 점을 중시하여 이들을 종결어미로는 보기 어렵다는 구조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었다. 또한 '-이쓰너', '-이쏜', '-이쓰니잇가' 등을 종결어미로 파악하게 되면 이와 형태상으로나 의미상으로 유사함을 보이는 보조사

‘-잇돈/이쏜’과의 유사성을 무시한 채 문법 기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는 ‘-이쏜녀’를 분석하는 마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쏜녀’를 종결어미로 볼 수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쏜녀’ 전체를 조사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계사 ‘(-)이-’와 어미 ‘-쏜녀’로 분석하는 방법, 셋째 조사 ‘-이쏜’과 계사 ‘(-)이-’, 어미 ‘-여’ 또는 ‘-어’로 분석하는 방법, 넷째는 조사 ‘-이쏜’과 조사 ‘-이여’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이쏜녀’ 전체를 조사로 분석하는 방법은 문법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쏜녀’ 전체를 조사로 분석하게 되면 조사 목록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쏜녀’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문법 형태소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쏜녀’와 관련 있는 ‘-이쏜’, ‘-이쏜니잇가’와의 관련성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쏜녀’를 계사 ‘(-)이-’의 활용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이쏜녀’와 ‘-이쏜’, ‘-이쏜니잇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쏜’은 결코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쏜녀’ 등의 ‘이’를 계사로 파악하게 되면 ‘이쏜’, ‘-이쏜니잇가’의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V-(리)거나쏜’으로 나타나는 ‘-이쏜’ 구문에서는 계사가 어미 구조체 ‘-거니’ 뒤에서 통합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NP-이쏜니잇가’로 나타나는 ‘-이쏜니잇가’ 구문에서는 계사가 두 번 나타나게 될 뿐만 아

30) ‘-이쏜녀’의 ‘이’를 이렇게 계사로 본 대표적 연구로는 이인모(1977)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인모(1977: 93~95)에서는 ‘NP-이쏜녀’가 계사 ‘(-)이-’를 지닌 서술어임을 보이는 예로 『衆生이 흐며 말며 念 뛰유미 … 罪 아니니 업스니 … 흐물며 제 뺨?장 산 것 주기며 도죽 흐며 邪淫 흐며 거죽말 흐며 百千罪狀이쏜녀 (月釋21: 98)』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제 뺨?장 산 것 주기며 도죽 흐며 邪陰 흐며 거죽말 흐며’ 등은 ‘百千罪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거죽말 흐며’와 ‘百千罪狀이쏜녀’의 사이에는 ‘흐는’ 정도가 생략된 것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인모(1977: 93~95)에서 이를 ‘주기며’, ‘도죽 흐며’ 등과 기능이 같은 서술어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다.

나라 '쏜'의 문법적 범주가 매우 모호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쓰녀'의 '이'를 계사로 보게 되면 '-이쓰녀' 전체를 종결어미로 파악할 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곧 '-쓰녀'를 종결어미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 기술에 있어서의 부담은 '-이쓰녀' 전체를 종결어미로 볼 때와 다른 바 없게 되고, '-이쓰녀' 속에 포함된 '이쏜'과 문중에 나타나는 보조사 '-잇돈/이쏜'과의 관련성을 포착하여 기술하기 어려워 문법 기술의 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쓰녀'의 '이'를 계사로 파악하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은 '-이쓰녀'를 조사 '-이쏜'과 계사 '(-)이-'로, 종결어미 '-여' 또는 '-어'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우선 종결어미 '-여'로 분석하는 방법은, 중세국어에서 '-여'가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는 달리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³¹⁾ 종결어미 '-여'를 설정하는 것은 다만 '-이쓰녀'의 경우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매우 인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종결어미 '-어'로 분석하게 되면 이때의 '-어'는, 15세기의 의문형 '-녀/-니어/-니여', '-려/-리여/-리아/-리야' 등에서 보이는 '-어'라고 할 수 있다(안병희·이광호, 1990: 243~245). 이렇게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이쓰녀'와 '-이쓰니잇가'의 의미상의 동질성과 구조적 평행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쓰니잇가' 구문을 'NP+이쏜#이+잇가'로 분석했듯이 '-이쓰녀' 구문도 'NP+이쏜#이+어'로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종결어미 '-잇가'와 '-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쓰녀' 구문과 '-이쓰니잇가' 구문이 청자 대우 등급상의 차이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은 더욱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은 15세기의 의문법 어미 '-녀/-뇨', '-려/-료'를 공시적으로 '-나-'와 '-어/-오', '-리-'와 '-어/-오'로

31) 15세기 국어의 감탄법 종결어미 '-온더', '-을써'를 더 분석하여 감탄어미 '-여'를 분석해 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5세기보다 앞선 시대인 고려시대 초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감탄어미는 '-그', '-그니'(-온더)로 나타날 뿐 감탄어미 '-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에서 '-여'를 분석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느', '-느'(-여)는 모두 명사구와 통합한 예만을 보여 조사적인 용법만을 보인다.

분석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의문법 어미에 대한 기원적인 분석일 수는 있어도 공시적인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의문법 어미로서 '-어'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자격을 지닌 '-오'도 의문법 어미로서 설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문법 어미로서의 '-오'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쓰녀'를 조사 '-이션'과 계사 '(-)아-', 종결어미 '-여'나 '-어'로 분석하는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쓰녀' 구문의 구조는 명사구에 강세 또는 강조의 보조사 '-이션'이 통합되고 그 뒤에 '-이여'가 통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때 '-이여'의 통사 범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조사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3) ㄱ. 龍論 議論도 어즈립곤 허물며 親近호미여 [數論도 尚亂 허곤 親近乎 | 예] (法華5: 13)
 - ㄴ. 善男子아 虛空이 空간 이솜 아니며 쪼 空간 업솜 아닌 둘 반듯기 아를 드니 허물며 쪼 如來へ 圓覺 조차 順호미 虛空의 平等호 本性이 드외니여 [善男子아 當知虛空이 非是暫有丨며 亦非暫無丨니 沉復如來圓覺隨順이 而爲虛空의 平等本性이여] (圓覺上2~3: 31)
 - ㄷ. 보물 鐮살도 몸 보거니 허물며 머리 아득호미여 [觀不觀睫거니 沉渺冥乎 | 애] (法華4: 53)
- (14) ㄱ. 놀에 브르고 춤 처서 空衣를 펴느니 荒淫홀서 넷 風俗이여 (杜初13: 15)
 - ㄴ. 罟 허르는 므리 바를로 가는 끄디여 萬國의 님금을 奉戴하는 므승미로다 (杜初13: 21)
 - ㄷ. 東郡에 둘해 돋는 나리여 南樓에 仄장 보는 처서미로다 (杜初14: 4)
 - ㄹ. 삽고 애발본 끄디여 누를 가줄밟가 (月曲上 其143)

(13)의 예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쓰녀' 구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쓰녀' 대신 감탄조사 '-이여'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13 ㄱ)은 '親近호-'의 명사형 '親近'에 '-이여'가 통합된 예이고, (13 ㄴ)은 '드외-'의 관형사형 '드원'에 의존명사 '이'가 통합된 '드외니'에 '-이여'가 통합된 예이다.³²⁾ 결국 이들 문장은 앞의

32) 이때의 '드외니여'는 외형상 의문형처럼 보이지만 의문형일 수 없다. (13 ㄴ)은 부처가 金剛藏菩薩에게 '空華'의 비유를 통한 설법을 마무리하여 재시하는 장면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후행절 부분에 대해서는 "허물며 또 如來의 圓覺을 키아 따름이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되느냐?"라는 해석은 있을 수 없고

'-이쓰너' 구문들과 비교할 때 '-이쏜'이 개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차이밖에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들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쏜'을 통합시킨 것이 '-이쓰너'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희, 1982: 50~55). 이렇게 보면 (13)에서의 '-이여'와 '-이쓰너'의 '-이여'는 동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에서의 '-이여'는 일반적으로 (14)의 '-이여'와 동일한 것으로서 호격조사 또는 감탄조사로 처리되어 왔던 것인바 결국 '-이쓰너'의 '-이여'도 (14)의 '-이여'와 같이 호격조사 또는 감탄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를 호격조사라기보다는 감탄조사로 보고자 한다.³³⁾ 결국 '-이쓰너'는 강조의 보조사 '-이쏜'과 감탄조사 '-이여'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하물며 또 如來의 圓覺을 쫓아 따름이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되는 사실이겠느냐? (이 러한 사실은 더더욱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정도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문이 ‘虛空人 世界人 法도 오히려 華의 닐며 滅흡과 굳디 아니론 旱물며 如來人 圓覺 조차 順한사미 澄然히 眞常 旱야 이 虛空의 體性이여’로 나타난 사실을 고려할 때 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 33) 허웅(1975) 등에서는 '-이여'를 호격조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필영(1986)에서는 “화자 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 그 대상이 청자가 되지 못하는, 단순한 외침의 경우”에 쓰인 호격조사를 감탄조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홍빈(1984: 177)에서 현대국어에서 '-야' 보다 '-여'가 환기하는 대상이 보다 추상적이며 관념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렇듯이 감탄조사는 호격조사와 그 기능에 있어서 사뭇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호격조사라는 범주 안에서 같이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승희(1996: 18~20)에서도 기원적으로는 감탄조사가 호격조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공시적으로 이 둘을 별개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호격조사와 감탄조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기로 한다.
- 34) 그런데 과연 보조사 '-이쏜'과 감탄조사 '-이여'의 통합이 당시의 문법 체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보조사와 감탄조사의 통합이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이러한 분석 외의 다른 분석 가능성은 모두 문제가 있고 (13)과 같이 '-이쓰너'를 '-이쏜'과 '-이여'의 통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예들이 존재하며, 이때 분석되어 나오는 '-이쏜'과 '-이여'도 당시 문법 체계 내에서 모두 발견되는 각각의 형태소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쓰녀'가 보조사 '-이션'과 감탄조사 '-이여'가 통합한 것이라면, 왜 '-이쓰니여'가 아닌 '-이쓰녀'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이쓰녀' 구문의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흐물며 … NP-이쓰녀'의 구조를 지닌 '-이쓰녀' 구문은 강조 표현으로서 관용적으로 그 용법이 이미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그 쓰임이 굳어지면서 '-이션'과 '-이여'의 통합 전체를 하나의 문법 단위로 인식하게 된 결과 '-이쓰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3.2. 'NP-이쓰녀'의 문법적 지위와 '-이쓰녀' 구문의 성격

이제 우리가 앞서 논의를 유보시켜 왔던 'NP-이쓰녀'의 문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NP-이쓰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쓰녀'의 성격이 바로 앞서의 논의에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NP-이쓰녀'의 문법적 지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NP-이쓰녀'의 '-이여'가 감탄조사로서 (13), (14)에서의 '-이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들 예에서 'NP-이쓰녀'의 문법적 성격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의 'NP-이여'나 여기에 강조 또는 강세의 '-이션'이 더 통합된 '-이쓰녀' 구문의 'NP-이쓰녀'는 결국은 동일한 문법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14)와 같은 구문에서의 'NP-이여'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NP-이여', 'NP-이쓰녀'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NP)는 과연 어떠한 통사적 지위를 지닌 명사구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13ㄱ), (14ㄱ-ㄷ)의 예에서 'NP-이여'의 명사구가 나머지 부분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한다는

35) 이는 정재영(1992:389)에서 15세기 국어의 통합형 어미 '-온더'가 기원적으로 '-온#드#이여'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15세기 언해문에서 '-온디여'로 나타나지 않고 '-온더'로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15세기 활번 이전부터 이 통합형 어미가 굳어진 채로 활발히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본 것과 유사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P-이여' 구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NP-이여'의 명사구가 그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13ㄴ), (14ㄹ)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각 문장의 '… 드외니여', '쉽고 애반본 빠디여'의 '드외니', '쉽고 애반본 빨'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서술어 '알-', '가줄비-'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NP-이쓰너'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앞의 (1ㄴ), (1ㄷ)의 '受持^한리쓰너', '發^한니쓰너'는, 'NP-이쓰너'의 명사구가 상정할 수 있는 후행절의 주어에 해당하고, (1ㄱ =7ㄱ), (12ㄷ)에서의 '非法이쓰너', '제 善根 닷가 내 힘 더으리쓰너'의 명사구는 각각 생략된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보리-', '(내) 惡道에 떠려다니 아니케코져 흐-'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또한 (8ㄷ)의 예에서는 'NP-이쓰너'의 명사구 '이제 부텨 드외엣는 적'은 생략된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내 忍辱力으로 양네 어엿 비 너거 恩惠를 펴 거리치-'의 부사어에 해당한다. 결국 문장의 거의 모든 성분이 'NP-이여', 'NP-이쓰너'의 명사구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명사구는 모두 선행절의 내용과 대비되어 부각되는 것들이다. 곧 'NP-이여', 'NP-이쓰너'의 명사구는 선행절 내용과 대비되어 부각될 수 있는 명사구이기만 하면 어떠한 통사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도 모두 올 수 있는 것으로, 선행절로 미루어 당연히 추론되는 나머지 요소를 모두 삭제하고 대비되는 명사구만을 부각시켜 그 표현 효과를 극대화한 문장이 'NP-이여', 'NP-이쓰너'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이쓰너' 구문이 특수한 구조의 수사의문문에서 나온 것임을 살펴본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쓰너' 구문의 형성 과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혀보기로 하자. 편의상 앞의 (1ㄷ)에서 들었던 예문을 여기에 다시 가져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15) ㄱ. *南閣浮提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쓰리어나 … 부엇고 出家호야도 八萬四千浮圖寶塔 세요모라와 더어 現世父母도 百年을 福樂^한며 七代先亡도 淨土에 나리니 호몰며 제 菩提心을 發^한니 淨土에 나디 아니흐리여 (수사의 문문)
- ㄴ. *南閣浮提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쓰리어나 … 부엇고 出家호야도 八萬四千浮圖寶塔 세요모라와 더어 現世父母도 百年을 福樂^한며 七代先亡도 淨

土에 나리니 호물며 채 菩提心을 發호니여 ('NP-이여' 구문)

느 南閣浮提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쓰리어나…부엇과 出家호야도 八萬四千浮圖寶塔 세요모라와 더어 現世父母도 百年을 福樂호며 七代先亡도 淨土에 나리니 호물며 채 菩提心을 發호니쓰녀 (月釋23:76~77) ('NP-이쓰녀' 구문)

(15)는 관련된 수사의문문에서 '-이쓰녀' 구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³⁶⁾ 결국, 수사의문문에서 선행절의 내용과 대비되어 부각되는 명사구만을 남기고 선행절로 미루어 추론 가능한 관련 부분을 삭제한 후 감탄조사 '-이여' 통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 문장이 'NP-이여' 구문이고, 여기에 부각된 명사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보조사 '-이쓴'을 통합시킨 것이 'NP-이쓰녀'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⁷⁾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이쓰녀' 구문에서 'NP-이쓰녀'는 문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지니는지 보다 명확히 밝힐 차례가 되었다. 우선 'NP-이여'나 'NP-이쓰녀'가, 접속문의 선행절 서술어와 동일한 성격의 후행절 서술어가 문면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문맥적 생략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략문은 복구 가능한 생략 현상을 보이는 문

36) 이러한 설명은 이현희(1982:58~5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37) (15)는 'NP-이쓰녀'의 명사구가 생략되어 있는 후행절 부분의 주어인 경우이다. 'NP-이쓰녀'의 명사구가 후행절의 목적어인 경우인 경우와 부사어인 경우의 형성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어인 경우인 앞 (8-7)은 '오직 아바匪病이 道호실시언명 모물 百千 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호니 호물며 이 더러본 모물 브료미 어려우리여 (수사의문문) → '오직 아바匪病이 道호실시언명 모물 百千 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호니 호물며 이 더러본 모미여 ('NP-이여' 구문) → 오직 아바匪病이 道호실시언명 모물 百千 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호니 호물며 이 더러본 모미쓰녀 (月釋21:216) ('NP-이쓰녀' 구문)'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부사어인 경우인 앞 (8-2)은 "提婆達多 | 디나건 뉘에 상네 모딘 므숨 머거 나를 헤어든 내 忍辱力으로 상네 어엿비 너겨 恩惠를 펴 거리치다니 호물며 이제 부텨 드외에는 저거 내 提婆達多를 거리치다니 아니 호리여 (수사의문문) → '提婆達多 | 디나건 뉘에 상네 모딘 므숨 머거 나를 헤어든 내 忍辱力으로 상네 어엿비 너겨 恩惠를 펴 거리치다니 호물며 이제 부텨 드외에는 저기여 ('NP-이여' 구문) → 提婆達多 | 디나건 뉘에 상네 모딘 므숨 머거 나를 헤어든 내 忍辱力으로 상네 어엿비 너겨 恩惠를 펴 거리치다니 호물며 이제 부텨 드외에는 저기쓰녀 (月釋22:68~69) ('NP-이쓰녀' 구문)'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만을 언급한 것인바,³⁸⁾ 'NP-이쓰너' 구문은 생략되기 이전의 후행절까지를 모두 지닌 완전한 문장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상정할 수 있는 생략되기 이전의 문장과 'NP-이쓰너' 구문은 서로 다른 문장이 된다는 점³⁹⁾에서 생략문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이쓰너' 구문이 (13)-(15)과 같은 문장 정도에서 생략으로 인해 나타난 문장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흐물며' 등과 같은 어휘의 삽입까지도 생략 현상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⁴⁰⁾

따라서 'NP-이쓰너'는 생략문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NP-이쓰너'의 문법적 지위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소형문'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의 '회의중, 뜁쓸 것, 아무개 올립, 차 뜯 둠, 불이야, 도둑이야, 재청이오' 등이 바로 문법 규칙의 적용만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특정한 상황 아래 관용화된 언어 구조인 소형문이라는 사실은⁴¹⁾ 지금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쓰너' 구문의 'NP-이쓰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국어의 소형문에 대한 논의가 발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중세국어 연구의 대상은 주로 문헌 자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문헌도 발화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본다면 현대국어 소형문에 대한 논의를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논의에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국어의 소형문들의 특성 가운데 일반적인 생략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소형문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요소를 보충한 완전한 형식의 문장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거나 보충했을 때에는 그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사실은 '-이

38) 생략 현상과 관련된 논의로는 임홍빈(1985), 장소원(1994), 양명희(1996: 143~171)을 참고할 수 있다.

39) 'NP-이여', 'NP-이쓰너' 구문에서는 기원적인 수사의 문문에서와는 달리 감탄조사 '-이여'나 보조사 '-이쓴'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0) 우리가 앞서 '-이쓰너' 구문의 형성 과정을 언급하면서 후행절 부분을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41) 장소원(1994: 270, 282) 참고 소형문에 대한 논의는 김민수(1971), 성광수(1972), 장소원(199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장소원(1994)에서는, 발화에는 어떤 완전한 기본 발화 또는 기본 문장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소형문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형태로 완벽한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 단위로 보고 있다.

쓰녀' 구문에서 'NP-이쓰녀' 뒤에 어떤 요소를 보충한 완전한 형식으로는 사용되기 곤란하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NP-이쓰녀'가 바로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소형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NP-이쓰녀'는 수사의 문문적인 의미를 표현하되 대비되는 명사구를 특히 강조하여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흐물며 … NP-이쓰녀'의 구조로 관용화되어 사용되었던 소형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³⁾ 이렇게 'NP-이쓰녀'가 문장의 성격을 지닌 것임을 확인한 이상 앞서의 논의에서 유보해 왔던 (3) '-이쓰녀' 구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쓰녀' 구문의 구조 : [s [s … -나/곤/거늘아] [、(흐물며) [NP [...]]-이쓰녀]]]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본 '-이쓰녀' 구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쓰녀' 구문은 기본적으로 접속문 구성을 지닌 수사의 문문 가운데 후행절의 내용과 선행절 내용이 대비되어 연관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선행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선행절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는, 어떤 대비되는 다른 대상(명사구)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관용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용적 용법의 '-이쓰녀' 구문은 이미 15세기 당시에도 그 쓰임이 활발치 않았던 것으로서 16세기의 쇠퇴를 거쳐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세국어의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의미 특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쓰녀'의 분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애초에 우리의 관심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우선 '-이쓰녀'의 문법적 지

42) 예를 들어 '어유 더워라'와 같이 일정한 청자가 없는 화자의 감정 표현이나 '고맙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청자를 상대로 한 발화는, 주어를 보충하면 “‘어유 내가 더워라’, ‘내가(제가) 고맙습니다’와 같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장소원(1994: 274)에서는 이에 대해, 주어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그 용법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43) '-이쓰녀' 구문을 이렇게 소형문으로 파악했듯이 앞서 살펴본 바 있는 'V-(리)거니깐'도 이와 같은 일종의 소형문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있으며, '-이쓰녀' 구문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밀히 규명하지 않은 채 수사의문문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는 식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와 의미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이쓰녀'에 대한 철저한 형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기인되었다는 판단에서 '-이쓰녀'의 분석과 '-이쓰녀'가 통합된 'NP-이쓰녀'의 문법 범주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견지해 왔던 관점은 문법 기술은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문법 형태소를 새로이 설정하여 문법 기술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기존의 문법 체계 속에서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설명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남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이쓰녀'의 구문은, 접속문적 성격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s [s … -니/곤/거늘마] [, (흐물며) [NP [...]-이쓰녀]]]의 구조를 지니는데, 후행절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선행절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쓰녀' 구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과 구조를 지니는 다른 문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접속문적 성격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s [s … -니/곤/옳단댄] [s … -리오]]의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그 구조가 '-이쓰녀' 구문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수사의문문 가운데 선·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대비되어 밀접하게 연관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에서 '-이쓰녀' 구문이만 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에서 '-이쓰녀'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지기까지 했던 '-이쏜' 구문은 그 구조에 있어서 '-이쓰녀' 구문과는 매우 다르며, 그 표현 가치는 수사의문문이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쏜' 구문의 '-이쏜'은 종결어미가 아닌 강조 또는 강세의 보조사이며 '-이쏜'이 통합하는 선행 성분인 '-거니'의 '나'는 선어 말어미가 아닌 연결어미 '-으니'라는 사실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었다. '-이쓰니 잇가' 구문은 청자 대우의 등급 차이를 제외하면 구조나 의미면에서 '-이쓰녀'와

동일한 구문으로서, ‘-이쓰녀’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적절히 청자를 대우해 줄 필요성으로 인해 나타난 구문이다. ‘-이쓰니잇가’는 보조사 ‘-이쓴’에 계사 ‘(-)이’가 통합된 후 뒤에 의문어미 ‘-잇가’가 통합된 것이다.

‘-이쓰녀’ 구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쓰녀’에 대한 분석의 문제이며, ‘NP-이쓰녀’의 문법 범주에 관한 문제였다. ‘-이쓰녀’는 결론적으로 강조 또는 강세의 보조사 ‘-이쓴’에 감탄조사 ‘-이여’가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NP-이쓰녀’는 그 자체로서 문장을 완결시키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일종의 소형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쓰녀’ 구문의 '(흐물며) NP-이쓰녀'는 엄연한 문장의 자격을 가지며 뒤에 어떤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쓰녀’ 구문은 기본적으로 접속문 구성을 지닌 수사의문문 가운데 후행절의 내용과 선행절 내용이 대비되어 연관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선행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선행절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는, 어떤 대비되는 다른 대상(명사구)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관용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중세국어의 ‘-이쓰녀’ 구문이 지닌 성격과 특성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는 ‘-이쓰녀’를 보조사 ‘-이쓴’과 감탄조사 ‘-이여’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을 때 분석되어 나오는 ‘-이쓴’과 ‘-이여’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선 강세의 보조사 ‘-이쓴’이 15세기 자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소라는 점에서 과연 15세기에 ‘-이쓴’이라는 형태소를 분석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쓰니잇가’ 구문의 형성에 대한 논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남는다. 이들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본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환(1987), <의문의 문답관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75.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중판 1992).
- 김승곤(1975), <중세국어의 가정형어미 'ண', '-쓰녀'고>, 『건대대학원 논문집』 2.
- 김승곤(1986), <중세국어의 형태소 'ண'과 '쓰녀'의 통어기능 연구>, 『조선학보』 119~120.
- 박영순(1991), <국어 의문문의 의문성 정도에 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수(1992), <국어의 특수 의문문에 대하여>, 『언어학과 인지』(김태옥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 성광수(1972), <국어 소형문에 대한 검토>, 『한글』 150.
- 안병희(1965), <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 6, 건국대.
-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명희(1996),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개정증보판), 을유문화사.
- 이승녕(1985), <'-ண', '-쓰녀'고>, 『국어학논총』(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칠기념), 창학사.
- 이승재(1993ㄱ),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 문학과지성사.
- 이승재(1993ㄴ),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 이인모(1977), <중세국어의 '-ண'계 어사연구>, 『한국학보』 6.

- 이필영(1986), <호객 및 감탄조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82),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대 한국어학당.
-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 장소원(1994), <현대국어의 소형발화 연구>, 『텍스트언어학』 2, 박이정.
- 장윤희(1991),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4.
- 정재영(1992), <통합형 어미 '-ㄴ돈'과 '-ㄴ더'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 정재영(1995), <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 한상화(1994), <기림사본 '능엄경'구결의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 135.